

신동빈, 전기차 배터리 정조준... 양극박에 1100억 추가투자

〈롯데그룹 회장〉

신 회장, 10여일 간 유럽 출장 중 헝가리 산단 '롯데 클러스터' 방문 양극박 생산규모 2배 확대하기로 이후 영국·프랑스 등 방문 예정

롯데그룹이 양극박 투자를 확대하며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롯데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신동빈 회장이 헝가리 타타바냐(Tatabanya) 산업단지에 조성된 '롯데 클러스터'를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신동빈 회장은 특히 7월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는 롯데알미늄 공장을 찾아 첫번째 시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롯데가 유럽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1100억원을 추가 투자해 양극박 생산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롯데알미늄 헝가리 공장은 연간 1만 8000t 규모의 이차전지용 양극박을 생산할 수 있는 유럽 유일의 양극박 전용 공장이다. 더불어 신 회장은 올해 초



신동빈 롯데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2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CGF에 참석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활동을 펼쳤다. /롯데

추가로 매입한 부지에 1, 2단계 투자 금액을 넘어서는 3단계 투자까지 검토했다.

'롯데 클러스터'에는 롯데케미칼과 롯데알미늄 공장뿐만 아니라 롯데정밀 화학과 롯데알미늄이 3000억원을 투자한 솔루션첨단소재의 음극박 생산공장도 인접해 있다. 롯데건설은 국내 물류

전문업체와 공동 투자해 단일 물류창고 기준 헝가리 최대 규모 물류센터를 개발하고 있다.

신 회장은 현재 10여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출장 중이며, 아일랜드를 다녀왔고 영국과 프랑스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CGF(컨슈머 굿즈 포럼) 글로벌 서밋의 롯데 부스에서 글로벌 소비재 경영진을 비롯한 포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신 회장은 펄시코, P&G, 월마트, 레베 등 글로벌 그룹 최고경영자들과 가진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하

며 유치 지원에 힘을 실었다.

CGF는 세계 70여 개국, 400여 개 소비재 제조사 및 유통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논의와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1953년 설립된 소비재 업계의 글로벌 협의체다. CGF의 대표 회원사로는 펄시코, 아마존, 월마트, 까르푸, 이온, 코카콜라, 네슬레, 다농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롯데는 2012년부터 가입해 활동해왔다.

신 회장은 하반기 VCM(벨류 크리에이션 미팅)을 그룹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한다. VCM이 롯데 주요 계열사대표 및 지주사 임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롯데 계열사들의 실질적이고 전방위적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尹 정부, 원전 최강국 도약... 올 협력업체에 1조 지원

원전 협력업체 지원대책 등 발표 내달 '원전수출전략추진단' 발족

신한올 3·4호기 건설 재개 위해 올 925억원 규모 일감 긴급공급 2025년까지 1조 이상 추가투입

정부가 '우주독립'에 이어 원자력발전 최강국 도약에 본격 나선다.

우선 기간 탈원전 기조에 따라 일감 절벽에 직면했던 원전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만 1조원을 쏟아붓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부터 시작한다. 7월엔 원전수출컨트론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발족해 원전수출을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22일 경남 창원 소재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원전 재건에 나서는 이유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원전 시장에 대해 세계 주요국들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은 원전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달러를 투자하고, 프랑스는 신규원전 6기 건설을 확정, 추가 8기 계획을 마련했다. 또 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지빌리티를 방문해 원자로 제작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적으로는 70여종의 소형모듈원전(SMR)이 개발 중이다.

정부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원전 생태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봤다. 그간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전생태계가 일감 절벽에 직면했다는 판단이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전 매출은 2016년 5조5034억원에서 2020년 4조573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전 인력은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줄었고, 1억2641만달러였던 원전 수출은 3372만달러로 급감했다.

정부는 우선 원전 예비품과 신한올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올해 중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올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한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 수출과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 수주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론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7월에 발족한다. 원전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고, 주요 수출 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원전발주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원전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조달 등 다양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부처, 전력 및 금융 공기업,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아울러 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가동한다.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지원 기업 수를 연간 100개로 확대하고, 해외 밴더 등록 기업수도 연 65개로 확대하는 등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전 협력업체 금융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협력업체 용자 지원 등으로 올해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체에 공급한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거래소 보유 코인 자산가치 '반토막' 관련 株 동반하락

가상화폐(가상자산)의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비상장으로도 거래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주식도 크게 곤두박질 치면서, 가상자산 관련 주식도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코인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오후 2시 기준 2만435달러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말까지만 하더라도 4만5500달러에서 거래가 이뤄졌지만,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절반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 거래소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이들 거래소들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 내용을 공시한 넥슨의 경우 비트코인 1717개를 개당 5만8226달러에 총 1억달러 가량을 매수했다. 그러나 해당 물량 가치는 이날까지 64.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최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보유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8189개, 3548개다. 달러당 1296원 기준 가치는 세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각각 2838억원, 97억원 감소하면서 총 2935억원 줄어든 58.9%가 감소했다.

빗썸에서도 같은 기간 가상자산 가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빗썸은 지난 3월말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각각 964개, 1만3429개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치가 49.63%(565억원) 줄었다. /이영석 기자 ysl@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 발생...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질병청, 전국 비상방역체계 가동

질병관리청이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한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방역당국은 이날 원숭이두창의 심한 자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당국은 현재의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전국 시·도와 확진자 발생 시·도 내 모

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